

광주은행, 1조2000억대 '상생금융' 지원한다

금감원장, 소상공인·중기 간담회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계획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경영 안정 초점
서민금융 '햇살론뱅크' 대폭 확대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1조2000억대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31일 595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6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조2250억원의 상생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계획에는 서민금융 종합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컨설팅 지원 등 비금융지원까지 담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은행의 상생금융 지원은 △햇살론뱅크 3000억원 △주택담보대출 1500억원 △최저신용자 지원 1000억원 △새희망홀씨 450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과 △특별자금지원 5500억원 △보증재단 출연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가운데)은 31일 광주은행 본점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동한 800억원 자금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표 서민금융지원상품인 '햇살론뱅크' 지원규모를 대폭 강화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244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1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또한, 지역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5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1% 금리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며, 광주은행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 지원 특화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은행은 취약차주 가계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용금융특별대출 금리우대(최대 2%)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7% 초과 고금리 대출 및 보증서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우대(최대 1%)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금융지원을 동시에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성장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JB금융그룹 전북은행도 65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3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광주

은행 본점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부터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자체 및 학계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업해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격려했다. 또 광주은행이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이 원장은 오전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광주 AI 스타트업 캠프를 방문해 광주시가 AI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입점업체의 AI 시연을 관람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삼성전자, 고효율 강조 '절전가전 페스타'

에너지 효율 모델에 혜택
냉장고·TV 등 보상판매

삼성전자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 절전가전 페스타'를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한다.

'삼성 절전가전 페스타'에서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등 주요 가전뿐만 아니라 TV 포함 총 10개 품목, 90개 모델을 더 큰 혜택으로 만날 수 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모델 또는 'AI 절약모드'를 지원하는 특별 패키지 모델을 2품목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모델별 최대 50만원 상당의 혜택(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제공한다.

실제 삼성전자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모델은 소비전력 절감 효과는 물론,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고효율 에너지 절감 모델로 추가 절약이 가능하고 추가로 AI 절약모드로 전력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냉방 효율이 최대 20%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풍 모드를 사용할 경우 맥스풍 대비 최대 90%까지 소비전력이 절약된다.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25kg)는 에너지 효율이 1등급 기준 대비 효율이 최대 30% 높고,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는 최대 22% 더 높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을 반납하고 최신 절전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판매도 실시한다.

비스포크 냉장고 1등급 전 모델을 구매하고 기존 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제공하며, 삼성 65형 QLED 이상 TV를 구매하고 구형 TV를 반납하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증정한다.

또 이번 행사 모델 구매 후 삼성닷컴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약 1년치 전기요금인 최대 1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증정한다.

한국광기술원, 반려동물용 검이경 개발

진단·치료 동시에 가능
내시경 결합 인체 적용

한국광기술원은 (주)원어스테크놀로지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법인 (주)코어스테크를 통해 반려동물의 귀 내부를 관찰하고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용 광원 삽입형 반려동물용 검이경(檢耳鏡)'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광기술원 광바이오헬스연구센터에서 개발에 성공한 이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치료용 레이저 및 광 전송을 위한 소형 광학계를 추가해 소형 반려동물의 귓병 발생 여부 체크 및 치료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사진)

제품을 통해 특히 소형 반려동물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귓병의 발생 여부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결합 수도 있어 반려동물 의료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연구센터 측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과 맞춤형 건강진단 및 치료방법 제시가 가능한 원격 펫 셀프케어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어 앞으로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제품을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조직 손상 따위에 의한 염증 반응에 특히 깊이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발현 세포를

이용한 세포실험과 반려묘 대상 동물실험 성능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인허가 및 의료기기 제조 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연구개발은 천안시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광기술원은 광원 및 카메라 제어 기술을 (주)코어스테크에 이전, 제품 사업화에 힘쓰고 있다.

신인희 한국광기술원 광바이오헬스연구센터장은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반려동물용 검이경 기술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내시경 기술을 결합해 인간의 만성염증 및 통증 치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한국광기술원은 광바이오헬스 전문생산기술연구거점기관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대우건설,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속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예방

대우건설은 지난달 28~30일 정원주 회장과 실무진이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국가정상급 지도자를 예방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쉬하바트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르카타 궁의 최고지도자 집무실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을 예방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논의하고 현지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은 모로코, 나이지리아, 알제리에서 비료플랜트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인프라,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비료공장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한 대우건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속도로, 수처리, 담수화, 가스 프로젝트에서도 대우건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리, 신재생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추가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



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해외 업체가 국가최고지도자와 대통령을 같은 날 예방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로 대우건설의 현지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확인받았다"며 "추진 중인 2건의 비료공장 건설사업을 비롯해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현지화를 추진해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앙아시아의 거점시장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